No. 7 매매 전략 읽는 시간 5분

물타기는 손실을 줄이는 방법일까?

주가가 내렸을 때 추가로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가상의 숫자로 계산합니다. 본전 가격은 어떻게 달라지고, 손실은 언제 커지는지 확인합니다.

한 줄 결론

물타기는 본전 가격을 낮추지만 손실 금액도 함께 키움

확인할 숫자

평균 매입 단가, 본전 가격, 추가 매수 후 손실 금액



사진: 물이 튀어 오르는 세 개의 유리잔, derekGavey, Flickr.

목차

1. 물타기를 하면 본전 가격은 얼마나 내려갈까?
2. 주가가 더 내리면 손실은 어떻게 될까?
3. 주가가 내린 이유부터 따져야 할까?
4.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무엇이 다를까?
5. 지금 처음 산다면 같은 가격에 살까?
6. 물타기 전에 던질 다섯 가지 질문

> 이 글의 회사와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니며 추가 매수를 권하거나 말리는 글도 아닙니다.

산 주식이 40% 가까이 내려 있는 계좌 화면을 보며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출까?" 하고 고민한 적,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이른바 물타기입니다.

그렇다면 물타기는 손실을 줄이는 방법일까요? 가상의 숫자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나란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01

물타기를 하면 본전 가격은 얼마나 내려갈까?

물타기는 주가가 내렸을 때 같은 종목을 더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일입니다. 평균 매입 단가는 투자한 돈 전체를 산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가상의 회사 M 주식 100주를 10,000원에 샀다고 하겠습니다. 투자금은 100만 원입니다. 주가가 6,000원으로 내려 평가액은 60만 원, 손실은 40%입니다. 이때 6,000원에 100주를 더 사면 평균 단가는 (100만 원 + 60만 원) ÷ 200주, 즉 8,000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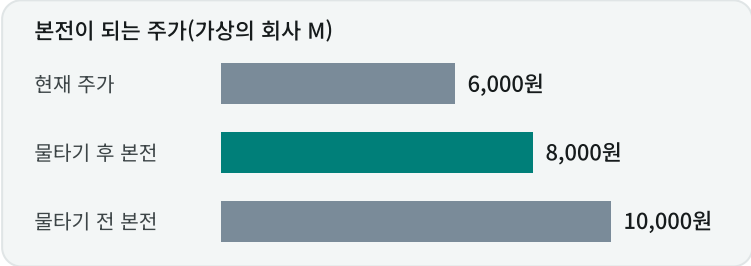


그림 1. 막대 길이는 가격에 비례함. 100주를 6,000원에 더 사면 본전 가격이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내려감.

본전까지 오르는 폭도 달라집니다. 물타기 전에는 6,000원에서 10,000원까지 약 66.7%가 올라야 했지만, 물타기 후에는 8,000원까지 약 33.3%만 오르면 됩니다.

이처럼 물타기의 가장 큰 효과는 본전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02

주가가 더 내리면 손실은 어떻게 될까?

문제는 주가가 더 내려갈 때입니다. 물타기 뒤에 주가가 4,000원까지 내렸다고 하겠습니다. 물타기를 하지 않았다면 100주 × 4,000원, 즉 40만 원이라 손실은 60만 원, 마이너스 60%입니다.

물타기를 했다면 200주 × 4,000원, 즉 80만 원이고 투자금은 160만 원이라 손실은 80만 원입니다. 비율은 마이너스 50%로 줄어 보이지만 금액은 20만 원 늘었습니다.



사진: 빗방울이 맺힌 유리창, Horia Varlan, Fli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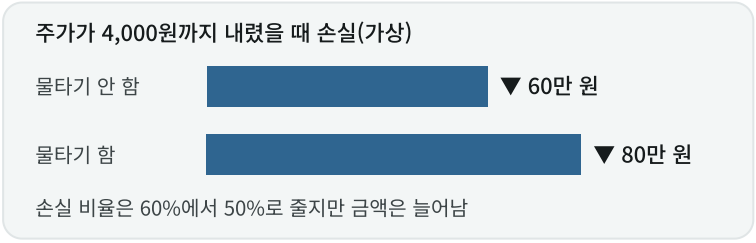


그림 2. 막대 길이는 손실 금액에 비례함. 가상 예시이며 실제 주가 흐름이 아님.

그러니 물타기는 손실의 비율을 줄이지만 손실에 걸린 돈은 늘립니다. 이 차이를 알고 해야 합니다.

03

주가가 내린 이유부터 따져야 할까?

같은 40% 하락이라도 이유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시장 전체나 업황이 흔들려서 내렸는지, 회사 자체의 이익이 꺾여서 내렸는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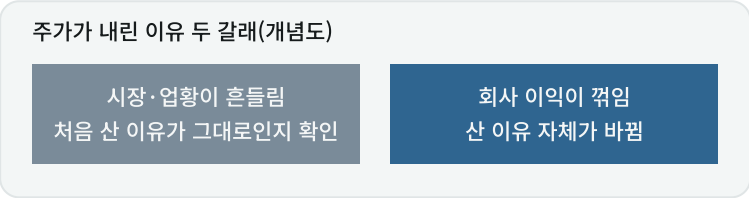


그림 3. 개념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같은 하락도 의미가 달라짐.

산 이유가 그대로라면 추가 매수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가 바뀌었다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일은 틀린 판단에 돈을 더 얹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과 공시는 DA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이유 확인입니다.

04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무엇이 다를까?

두 방법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분할 매수는 처음부터 몇 번에 나눠 얼마씩 살지 정해 두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물타기는 주가가 내려 불안해진 뒤에 즉흥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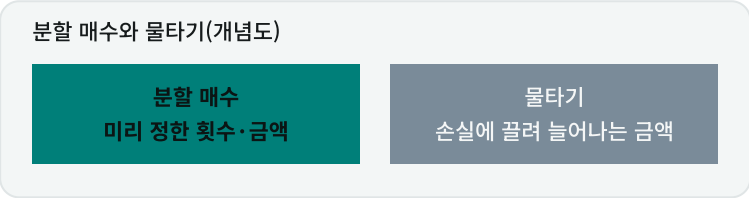


그림 4. 개념도. 차이는 계획이 먼저였는지, 손실이 먼저였는지에 있음.

물타기가 위험해지는 때는 한도가 없을 때입니다. 하락할 때마다 같은 금액을 더 넣으면 한 종목의 비중이 계좌 안에서 점점 커집니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총 투자 한도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05

지금 처음 산다면 같은 가격에 살까?

물타기를 고민하는 마음에는 본전에 대한 미련이 섞여 있습니다. 이미 쓴 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그 돈을 잊고 새로 판단해 보는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사진: 사방을 가리키는 나무 이정표, Matt From London, Fli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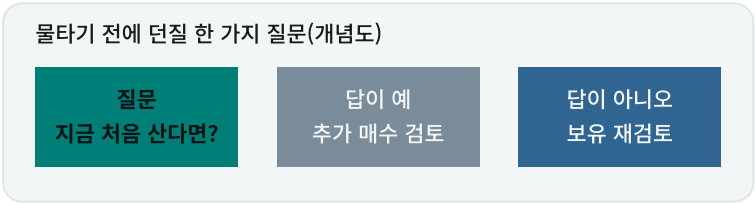


그림 5. 질문과 답의 흐름을 보여 주는 개념도.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름.

지금 가격에서 처음 사지 않을 종목이라면,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사는 것은 같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 사도 좋다고 답할 수 있다면 물타기는 새로 사는 것과 같아집니다.

본전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감정의 닻입니다.

06

물타기 전에 던질 다섯 가지 질문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가가 내린 이유는 시장인가, 회사인가?"**
   → 산 이유가 그대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물타기로 낮아지는 것은 무엇이고 늘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 본전 가격은 내려가지만 손실에 걸린 금액은 커집니다.

3. **"미리 정한 한도가 있는가?"**
   → 한도 없이 늘리면 한 종목의 비중이 계속 커집니다.

4. **"지금 처음 산다면 같은 가격에 살까?"**
   → 본전에 대한 미련과 새 판단을 구분합니다.

5. **"더 내려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
   → 손실 비율보다 손실 금액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물타기가 손실을 줄이는 방법인지는 평균 단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유 종목 중 내려 있는 한 곳의 산 이유부터 한 줄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담당자 검토]

참고 자료

- 글에 쓴 회사 M과 모든 가격, 수량, 금액은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기업 자료가 아님
- 기업의 이익과 공시 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dart.fss.or.kr
- 사진 3장의 출처는 각 사진 아래에 적음(유리잔 derekGavey, 유리창 Horia Varlan, 이정표 Matt From London, 모두 Flickr)

분류·태그 매매 전략 #매매 전략 #물타기 #손실 회복 #위험관리

온라인 원문: https://www.stock-diary.kr/p/2026-11-15-averaging-down.html

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참고 자료」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허락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 출처는 본문 캡션과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담당자 검토]